



박영수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1995년 4월 출범한 이래 시설 안전, 건설 안전, 지하 안전 등을 아우르는 안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입지를 굳혀 온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12월 10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새롭게 출발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물의 건설(설계·시공 등)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은 정부의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 4월 추락 사고 방지대책,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 올해는 4월 건설안전 혁신방안, 6월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 등을 잇달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박영수 이사장

정부는 다양한 안전 제도와 정책을 통해 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 현장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 사고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 현장 감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내실 있는 안전 점검과 사고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지사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건설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안전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28일 목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3차 이사회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중장기 경영목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국토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건설 안전·시설 안전·지하 안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담고 있다.

현장이사회에 이어 10월 30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출범과 관련한 '건설 및 시설 분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다짐하면서 10월 말에는 미션(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과 비전(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 안전 지킴이)까지 결정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5년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맞을 올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식은 12월 10일 경남 진주에 있는 공단 본사 인재교육원에서 열린다. ⑤

